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으로 이뤄지는 칭의와 성화를 함께 통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시안더와 로마가톨릭교회와의 논쟁을 통하여, 칼빈은 인간은 직접적으로 자신 안에 내재적으로 주입된 의와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길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이단적 가르침에 대항하여 칭의의 진리를 변증하는 냉철하고도 탁월한 복음주의적 지성을 지닌 제네바 시의 종교개혁자로서만이 아니라 칭의론에 담겨진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양 폐들에게 증거하고자 애썼던 제네바교회의 담임목회자로서의 새로운 칼빈상을 조명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연구 방법은 개혁자인 동시에 목사였던 칼빈의 신학,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께 혼신되었던 그의 삶을 통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필자는 한국 개혁 장로교회가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의 칭의론에 나타난 성경적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칼빈의 칭의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한국 장로교회는 특정한 직분과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인본주의와 윤법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칼빈이 16세기 제네바와 슈트라스부르크 교회에서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근거한 칭의론을 다시금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칼빈의 칭의의 교리가 오늘의 한국 개혁 장로교회에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임을 믿어 마지않는다.

■ 주제어 ■

칭의, 믿음, 은혜, 하나님의 의, 신비적 연합

4 칼빈의 윤법(*Ilex*) 이해 :

「기독교강요」 초판(1536)을 중심으로

조정자 박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원래교수, 조직신학

1. 서 론

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회사나 일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는 윤법주의(legalism)와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윤법폐기주의(antinominalism)가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국의 다양한 공동체들(가정, 교회, 사회, 국가) 속에서도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종종 발견된다. 윤법주의는 권위주의적인 공동체와 타율적인 공동체를 양산할 수가 있고, 반면에 도덕폐기주의는 자유방종적 공동체를 양산할 수가 있다.

한국교회에도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화의 삶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윤법을 통한 자율적인 성화의 삶과 사랑의 실천을 경시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교회와 이단들이 발견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을 무시한 채, 율법의 절대적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지상주의나 쉽사리 상대편의 잘못을 무조건 정죄만 하는 경우가 한국교회에서 발견된다. 결국 이 양자는 올바른 율법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빈 당시에도 율법을 중심으로 잘못된 견해들이 있었다. 칼빈의 작품을 읽어 보면,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변증적 비판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로마가톨릭교회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기울어져, 인간이 만든 규범이나 특정 예배의식이나 형식을 절대화하여 교회를 부자유 가운데로 인도했다. 재세례파들은 정당한 사회나 국가의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여 사회 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소위 자유파(*les Libertines*)는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거룩한 삶을 해쳤다. 칼빈은 교회 치리 문제를 중심으로 재세례파의 완전주의나 도덕주의도 피하고, 소위 자유파의 도덕폐기론도 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 치리를 사랑의 경고의 차원과 성도의 거룩성의 차원에서 율법의 제3용도를 강조하고, 활용하였다.

우리는 본고에서 칼빈의 초기 작품인 「기독교강요」 초판(1536)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율법의 정의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논의하고,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한 분석과 각 공동체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율법에 대한 정의와 기능

1) 율법에 대한 정의

칼빈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가 성취해야만 하고, 우리가 빚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중에 어떤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결과적으로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거울이 된다.”¹⁾

칼빈의 경우, 율법에는 ‘자연법’(自然法)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自然人)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법’(良心法)이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인치셨다(롬 2:1-16). 그러나 이것은 양심(*conscientia*)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을 양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 앞에 선과 악을 제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²⁾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법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만 인간의 무지를 평계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기능이 가능하도록 ‘기록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인간은 교만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 사랑에 의해 눈먼 존재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자리로 내려와서 자기 비참을 고백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서 완전한 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기록된 법(*legem…… scriptam*)을 주셨다.”³⁾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기록된 율법(*scripta lex*)은 자연법에 대한 증인(*testimonium …… legis naturalis*)이다. 자연법이 우리를 교훈할 때, 수시로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일깨워 주는 증인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⁴⁾

1) John Calvin, 양낙홍 역, 「존 칼빈 기독교강요」(1536년 초판 완역)(서울 : 크리스챤라이브스터, 1988), 72. 이 번역 작품을 앞으로 「기독교강요」(1536)로 표기하기로 한다; F. L. Battles(tra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 W. B. Ee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17. 이 작품을 앞으로 E로 표기하기로 한다.

2) 「기독교강요」(1536), 71-72 ; E 16-17.

3) 「기독교강요」(1536), 72 ; E 17.

4) 「기독교강요」(1536), 72-73 ; E 17.

기록된 법은 곧 성서에 나타난 율법이며, 구약성서에는 의식법과 제사(예배)법과 특별히 십계명에 나타난 도덕법이 있다. 칼빈은 십계명의 제4계명을 해설하는 가운데서,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의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그 내용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의 교육하에서 표현되었던 그 의식들과 외적 제사(예배)는 폐기(*abolita caeremonia et externo ritu*)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공히 영원 토록 가지기를 원하셨던 계명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것이 그 진리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고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⁵⁾

결론적으로 말하면, 칼빈의 경우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의(義)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의를 내포하고 있는 거울이다. 양심법에 해당하는 자연법을 비롯하여 성서에 기록된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은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자연법은 완전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의식법과 제사법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식은 폐지되었으나, 그 내용과 진리는 그대로 보존되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영원히 유효한 완전한 사랑의 법이다. “우리는 십계명에 드러난 전(金) 율법(*totam legem*)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금지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배우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caritatem*)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⁶⁾

5) 「기독교강요」(1536), 82-83; E 23.

6) 「기독교강요」(1536), 91; E 28, 참고. 「기독교강요」(1536), 75; E 18-19.

2) 율법의 세 가지 기능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의가 계시된 율법의 기능(용도, 사용; *officium et usus legis*)을 칼빈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율법의 기능과 용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⁷⁾

칼빈이 이해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 인식의 기능 또는 정죄의 기능이다(*usus legis theolocus et spiritualis*).

첫째,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보여 줌으로써 율법은 각 사람의 불의를 책망하며, 그의 죄를 깨닫게 해 준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주께서 그들의 허영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 모든 어리석은 견해가 제거된 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탱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⁸⁾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모든 법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정죄받은 인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 모든 어리석은 견해가 제거된 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탱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의 행위의 의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향하는 고로 이러한 교만이 팽개쳐져서 빙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만 의지하고 그 안에 쉬며 그곳에 숨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의와 공로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진실

7) 「기독교강요」(1536), 102; E 35.

8) 「기독교강요」(1536), 102; E 35.

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기 때문이다.⁹⁾

칼빈에 의하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사회적 기능이다(*usus legis politicus*). 인간은 자발적으로 율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진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인간은 율법을 지킨다. 여기서 율법은 사람을 두렵게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억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강요된 의를 행하게 된다.

둘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선언하고 범법자들을 위한 형벌을 설정하며 사망과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에, 최소한 무엇이 옳으며 바른 것인가에 관한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형벌의 공포에 의해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제어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거나 혼들려서가 아니라 고삐가 매였기 때문, 즉 그들의 손을 외적 행동에까지 뻗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마음대로 탐닉했을 부패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더 나아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없다. 비록 두려움이나 수치심에 의해 제동이 걸린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하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다.¹⁰⁾

율법의 두 번째 기능도 모든 사람과 모든 사회에 적용된다. 인간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행하는 의는 인간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9) 「기독교강요」(1536), 102; E 35.

10) 「기독교강요」(1536), 102-103; E 35-36.

그러나 이 억지로 강요된 의는 인간의 공공사회를 위해 필요하다. 주께서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그러한 대비를 하심으로써 완전하고 폭력적인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¹¹⁾

칼빈에 의하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의 제3사용으로써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화의 기능이다(*usus legis tertius*).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은 모든 사람들과 사회에 적용되지만, 칼빈이 주장한 율법의 제3사용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 속에서 성화의 차원에서 적용된다.

셋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다스리시는 신자들에게도 율법은 끽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에 대해 더욱 더 엄숙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 게다가 그들이 아무리 성령의 감화를 받아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연약하며 하나님보다는 죄를 섰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게으르고 고집 센 나귀를 채찍으로 쳐서 일어나 일터로 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해 한다. 요약하면 율법은 신자들에 대한 권면이다. 그것은 저주로 신자들의 마음을 구속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권고에 의해 그들이 나태를 떨쳐 버리게 하며, 그들의 불완전에 대해 항상 깨어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¹²⁾

지금도 자연인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즐

11) 「기독교강요」(1536), 103; E 36.

12) 「기독교강요」(1536), 103; E 36.

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써 율법을 지키게 된다. 정죄하고 저주하는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시키고 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율법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이러한 해방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있어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말했다. 율법이 신자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더 이상 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자들에 대해 이전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겁나게 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선행이 칭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과는 다르다. 선행이란 것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니고 또 선행이 선행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선행을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선행의 공로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 9:6; 살 전 4:14-18).¹³⁾

3.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의 의미

칼빈은 제4계명을 해설한 후에 십계명의 항목에 대한 분류를 간단하게 논의하면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즉 첫째 돌판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범주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즉 둘째 돌판을 이웃 사랑에 대한 범주로 분류한다.¹⁴⁾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상호 구별되지만, 이웃 사랑의 근거와 동기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나누어져 있었다(출 32:15; 34:1; 신 10:1). 첫째 돌판은 처음의 네 개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의무를 보여 준다. 즉,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그리고 모든 다른 것에 앞서 그분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그분 안에서만 구하는 것, 항상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둘째 돌판은 남은 여섯 개의 계명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행해야 할 사랑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¹⁵⁾

칼빈은 사랑의 계명으로써의 구약의 십계명에 대한 설명에 이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십계명을 두 개의 주제로 요약하셨다고 이해한다.

복음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율법을 두 개의 주제로 요약하신다. 즉,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마 22:37, 39; 뉘 10:27). 비록 모든 율법이 이 두 개의 주제로 요약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변명의 구실을 박탈하시기 위해 십계명에 의해 더 깊고 명백하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에 관계된 전부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계된 모든 것을 선포하고자 하셨다.¹⁶⁾

그리고 칼빈은 십계명 해설을 마친 후에 십계명의 핵심을 요약하는 가운데, 첫째 돌판은 경건(pietas)을 배우고, 둘째 돌판은 황금률(마

13) 「기독교강요」(1536), 104; E 36-37.

14) 「기독교강요」(1536), 85; E 24-25.

15) 「기독교강요」(1536), 75; E 18-19.

16) 「기독교강요」(1536), 75; E 19.

7 : 12)의 정신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정신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 할 것을 강조한다.

첫 번째 돌판에 의해 우리는 특별히 경건에 대해(*ad pietatem*)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고백하며 그를 부르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그 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다리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보호를 찾으며 그분 안에 쉬는 것이다(마 7 : 12). 둘째 돌판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¹⁷⁾

칼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분명히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일부러 이미 과도한 사랑을 부채질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이야 말로 가장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¹⁸⁾ 여기서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 자기애(自己愛), 자기중심주의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다.

1) 첫째 돌판

십계명의 머리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을 주실 권리가 있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영광스런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며, 오늘날도 죄와 정욕의 굴레인 영적 바로인 마귀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시다.¹⁹⁾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며, 어떤 선(善)이나 덕(德)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말과 몸짓 등 외적 표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열심을 통해서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외적 행위만이 그분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과 생각까지도 그분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²⁰⁾

제2계명(출 20 : 4-5)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모든 예배와 경배를 한 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²¹⁾ 하나님은 불가해하시고, 육신이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만물을 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간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이나 우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형용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상은 거부되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무나 돌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공허한 정신으로 상상해서 만든 것을 확신했다.

19) 「기독교강요」(1536), 76 ; E 42.

20) 「기독교강요」(1536), 76 ; E 19.

21) 「기독교강요」(1536), 77 ; E 20.

17) 「기독교강요」(1536), 91 ; E 28.

18) 「기독교강요」(1536), 91 ; E 28.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만든 우상들 자체를 신들이라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우상숭배 자임에 틀림없다고 칼빈은 이해한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그것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표시와 모양이라고만 불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은 그들이 나무와 돌과 간음했다고 주저 없이 고발했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주되고 싶어하는 자들에 의해 매일 행해진 바로 그 일들, 말하자면 그들이 나무와 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경배한 바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다.”²²⁾

또한 중세교회가 ‘우상들’을 ‘교육받지 못한 자들의 책’이라는 근거 하에 이것들을 정당화한 것에 대하여 칼빈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선포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교리로 설정하셨다. ……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사실 말이다. 이 한 마디 말로부터 그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수천 개의 십자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탐욕스런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눈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과 은에 더 집요하게 고정시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³⁾

출애굽기 20:5~6 말씀은 우리의 불신과 우상숭배를 고발하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대신 돌리기 위해 새긴 우상이나 어떤 것과 경쟁하시고, 대항하신다. 또한 이런 잘못을 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대항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그의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자비와 친절을 베푸신다.²⁴⁾

22) 「기독교강요」(1536), 77; E 20.

23) 「기독교강요」(1536), 79; E 21.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의 말씀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탄할 때나 역경에서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육되게 해서는 안 되며,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려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모든 모욕과 불경건을 멀리함으로써 그분의 높은 위엄에 적합한 것 외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부르거나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분이 의도했던 것 외의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강신술, 저주, 불법의 축귀 행위, 그리고 기타 사악한 주문 암송 등의 미신에 사용하는 자들처럼 말이다.²⁵⁾

이 계명과 관련하여 칼빈은 서약과 맹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형제들의 필요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진실한 맹세라 할지라도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²⁶⁾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성급함 때문에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은 금지되나, 진실에 대한 증인이 재판에 필요할 때 치안판사에게 맹세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공의 선을 위하여 공적인 맹세는 가능하다. 맹세가 허용된 것은 정욕이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일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꼭 필요시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²⁷⁾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

24) 「기독교강요」(1536), 79-80; E 21.

25) 「기독교강요」(1536), 80; E 22.

26) 「기독교강요」(1536), 80-81; E 22.

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계명의 말씀은 제3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특별히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이다.

제4계명(출 20:8-11)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안식일 준수는 경건과 하나님 예배에(*ad pietatem et Dei cultum*)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²⁸⁾ 왜냐하면 이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더욱 강조하셨으며,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든 종교의 파괴를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모독당하고 침해되는 것과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칼빈은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하여, 이 계명은 유대인에게는 그림자로써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빛이요, 형상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세의 율법의 잔영과 같이 폐기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식이나 제사의 형식은 폐지되었으나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식일의 율법은 그러한 일들을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양심에 평안과 평정을 유지해 주는 성령의 인도에 의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며, 유대인의 안식일은 사실상 그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일곱째 날에 할당되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안식에는 아무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²⁹⁾

27) 「기독교강요」(1536), 81; E 22.

28) 「기독교강요」(1536), 82; E 23.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창조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창 2:1-3)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식을 누리지만, 장차 우리가 참여할 안식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히 4:1-11) 칼빈은 안식일을 이해한다. “오직 제 칠 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쉬셨는데(창 2:1-3), 그분의 모범에 의해 우리 또한 우리의 일을 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으며 제 칠 일의 이 안식을 열렬히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³⁰⁾

칼빈은 오늘날의 안식교나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이해하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로 이해한다. 그러나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지만,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정해진 하루인 주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일에 적용된다. 주일은 우리가 모든 다른 것에 앞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즉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날들을 공히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만의 특권이기 때문이다(롬 14:5). 그러나 그것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의 시행을 위해 모이도록 제정된 것이다(갈 4:8-11; 골 3:16).³¹⁾

주일에는 기계적이며 육체적인 노동을 중지하고,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비인간적인 주인이 계속적으로 종들과 짐승들을 지나치게 노동시킴으로써 적절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종들과 짐승들의 노동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³²⁾

이상과 같이 칼빈의 안식일 이해는 창조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된다. 아직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

29) 「기독교강요」(1536), 82-83; E 23.

30) 「기독교강요」(1536), 83; E 23-24.

31) 「기독교강요」(1536), 83-84; E 24.

32) 「기독교강요」(1536), 85; E 24.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정한 주일이 필요하고, 노역을 쉬기 위해 서도 주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둘째 돌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부모 공경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노엽게 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부모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명예롭게 해야 하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는 부가된 축복의 말씀은 이 계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보여 주는 동시에, 부모 공경에 나태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출 20:13)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종류의 행위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불공정하게 대해서도, 공격하거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된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친구든지 원수든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기쁘게 하며,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관대해야 한다.³³⁾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출 20:14)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우리의 행위의 순결과 자제심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위를 순결하게 하고, 자제심을 가지고, 조절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부부는 주님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의 순결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행해져

33) 「기독교강요」(1536), 86; E 25.

서는 안 된다. 독신주의를 찬양하는 로마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비판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최초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다.³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라는 해설에서 칼빈은 이웃의 재산권의 침해를 경계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사기를 통해서 도둑질하거나 무력으로 탈취해서는 안 되며, 장사나 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무지를 악용해서도 안 되며, 모든 종류의 간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도 안 된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친구든지 원수든지 최선을 다해 돋고, 재산을 보호해 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탈취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물질적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그 짐을 나누어 가지며, 우리의 물질로 가난한 자들의 가난의 짐을 들어 주어야 한다.³⁵⁾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거짓말을 경계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혐담하거나 독설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의심을 하거나 악의를 가져서도 안 된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말해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공정한 판단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가장 좋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거짓말도 아첨도 무익한 잡담도 기뻐해서는 안 된다.³⁶⁾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34) 「기독교강요」(1536), 86-87; E 25-26.

35) 「기독교강요」(1536), 88; E 26.

36) 「기독교강요」(1536), 88; E 26-27.

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에 대한 해설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심(貪心)을 금지하신다고 주장한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아내나 가족이나 소유나 어떤 좋은 것에 대한 모든 탐심을 금지하신다. 어떤 술책이나 잔꾀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서 떠나게 하거나 종들을 도망치게 한다거나 어떤 소유물들이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스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다면, 어떤 사람의 아내와 모든 소유물들이 안전하게 보존하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애정을 조장시킬 것이다.³⁷⁾

여기서 칼빈은 모든 공동체, 즉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속에서 서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지적한다. 여기에 루터에게서 발견되는 직업소명론이 발견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들을 탐내는 것을 금하는 이 규칙은 또한 각 사람이 자기의 소명을 따라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며 자기 직분에 관계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적용되어야 한다(엡 4장).”³⁸⁾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 속에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³⁹⁾

국가에서 사람들은 행정관들(왕, 왕자, 다른 권세 있는 자)을 공경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부를 대하여, 하나님의 뜻 아래 수행될 수 있는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말고, 법률과 계명을 따라야 한다. 또한 행정관들은 백성들을 돌보고, 정의를 구현하고,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행정관들은 최후의 왕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봉사에 대한 회계(會計)를 할

37) 「기독교강요」(1536), 89; E 27.

38) 「기독교강요」(1536), 89; E 27.

39) 「기독교강요」(1536), 90-91; E 28.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⁴⁰⁾

교회에서 교회의 목사들과 감독들은 말씀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구원의 도리를 혼잡 없이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채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 양 떼들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목사와 감독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한다.⁴¹⁾

가정에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며, 인정 없이 잔인한 태도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온유와 친절로 자녀들을 품고 감싸 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⁴²⁾

사회에서 노인들은 공경을 받아야 하며,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나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부족을 지도하면서 심하게 꾸짖지 말고, 유순함과 온유함으로 엄격함을 조절해야 한다.⁴³⁾

직장에서 종들(사원)은 주인들(간부나 사장)에게 부지런하고도 유순하게 행동해야 하며,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하듯이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한 주인들은 종들에게 까다롭고 고약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나친 엄격함으로 억압하지 말고, 욕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인들은 종들을 자신의 형제들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동일한 종들로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⁴⁴⁾

40) 「기독교강요」(1536), 89-90; E 27.

41) 「기독교강요」(1536), 90; E 28.

42) 「기독교강요」(1536), 90; E 28.

43) 「기독교강요」(1536), 90; E 28.

44) 「기독교강요」(1536), 90-91; E 28.

4. 결 론

교회사와 세계사는 물론, 특히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칼빈 당시에도 이 같은 부류의 사상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본고를 시작했다. 칼빈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법은 자연법으로써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기능을 상실하고, 다만 무지를 평계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하여 기록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약성서에는 의식법과, 제사(예배)법과,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이 있다. 의식법과 제사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식은 폐지되었으나, 내용은 동일하게 보존되었다.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영구적으로 유효한 법이다. 모든 법이 사랑의 정신을 지향하듯이 십계명도 사랑의 법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칼빈은 십계명의 첫째 돌판을 하나님 사랑에, 둘째 돌판을 이웃 사랑에 관계시켰다. 칼빈의 경우, 이웃 사랑의 근거와 동기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

율법의 기능과 관련하여, 모든 법은 율법의 첫째 기능과 둘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기능은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하는 정죄 기능과 죄를 깨닫게 하는 죄 인식의 기능이다. 율법의 둘째 기능은 사회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사회적 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율법의 행위에 대한 상벌을 통해서 일반 인간은 처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법을 지키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이 율법의 기능을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율법의 첫째 기능과 둘째 기능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가 담긴 십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지켜 나가게 된

다. 곧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화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율법의 용도가 바로 율법의 제3기능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화와 거룩성을 위하여 교회 치리와 관련해서도 율법의 제3사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였다.

십계명 해설과 관련하여 첫째 돌판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 계명과 둘째 돌판의 마지막 제10계명에 대한 칼빈의 해설은 각 돌판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첫째 돌판의 정신인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주일성수에서는 바로 교회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영적 안식은 물론, 육체적 안식을 얻고 각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쉬게 하는 사회학적인 차원도 발견된다. 또한 제10계명 해설에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직업소명론의 입장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소명에 따라 봉사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친구든지 원수든지 모두를 사랑하는 자세로 동일하게 봉사해야 한다.

21세기 오늘날도 우리는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율법주이나 도덕폐기론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칼빈이 이해한 율법의 제3사용을 충분히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한국교회를 향해 교회의 사랑 실천 부족을 비판하고 있는 요즈음,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교회와 칼빈의 유산을 이어받은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의 율법 사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확인하여 목회와 선교 현장에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주제어 ■

칼빈(Calvin), 율법(law), 용법(use), 성화(sanctification), 성령(Holy Spirit)